

[2020 한중일 청소년 문화예술 캠프]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온라인 한중일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입니다.

2016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추진에 따른 ‘제주문화선언’ 체결을 통해 매년 한중일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한중일 3개 도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캠프를

통한 상호문화 이해 및 우의 증진, 국제적 문화소양과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6년도부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청소년 문화교류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예술중점학교로부터 추천받은 18명의 제주문화외교관들과 함께 ‘마음 한 그릇’을 주제로 하여

11월까지 제주문화클래스 및 중국(닝보시)과 일본(나라시) 청소년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기록

한/중/일 청소년 캠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Since 2020



한중일 청소년 캠프 제주의 지난 활동 소개

한국(제주)은 일상 속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 한 그릇'이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8월은 '하루의 기록', 9월은 '제주의 식탁', 10월은 '일상 레시피', 11월은 '모두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8월은 지난 8.8(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그 동안 우리의 하루를 나누는 활동들이 진행되었고, 코로나 19와 각자의 일정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SNS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마음 한 그릇"

8월 [하루의 기록]			9월 [제주의 식탁]		
일정	8/8(토) 10:00-	8월 말	일정	9/21(월)	9/27(일)
내용	제주 O.T	문화 클래스	내용	한중일 온라인O.T	한중일 온라인만남

10월 [일상 레시피]			11월 [모두의 만찬]		
일정	10월 초	10/24(토)	일정	11월 초	11/23(월)
내용	문화 클래스	한중일 온라인만남	내용	네트워킹	한중일 성과공유회

*코로나 19 바이러스 향후 동향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한중일 토끼팀 우리팀 이야기



음식 : 모두가 좋아하고 관심 있어함 (치킨, 닭가슴살, 볶음밥, 차돌 된장찌개) 음식 사진이 단톡방에 절반일 정도로 모두 음식을 사랑함

인도식 음식이 주제로 떠오르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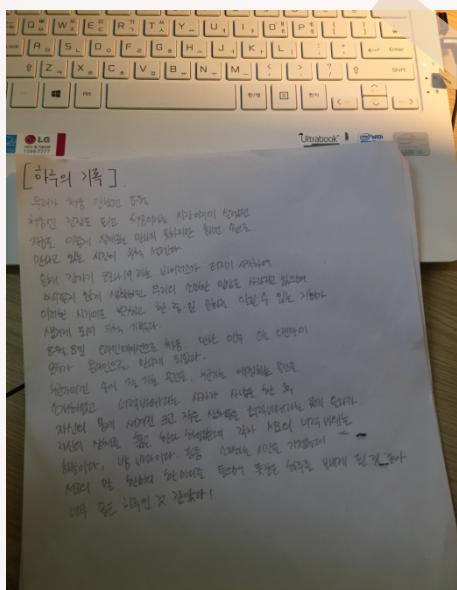
게임 : "Among Us"로 대동단결!

대면 만남의 기회가 무산되며 아쉬웠지만
"Among Us" 게임을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랬음

운동 : 우리팀에는 헬창이 있음! (농농)

운동을 정말 즐기는 모습이 보였음

카메라 : 메로나 형의 엄청나게 뛰어난 카메라 솜씨를
보게 되었음 직접 찍은 사진들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
모든 팀원들이 놀랐음 (정말 잘 찍으심!)



우리가 처음 만났던 8월

처음엔 긴장도 되고 처음이라는 시간이기에 설렜던 지금도 이렇게 실제로는 만나지 못하지만 화면 속으로 만나고 있는 시간이 무척 설렌다.

올해 갑자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터지기 시작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던 우리의 소소한 일상도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무척 기뻤다.

8월 8일 오리엔테이션으로 처음 만난 이후 오늘 오랜만에 모두가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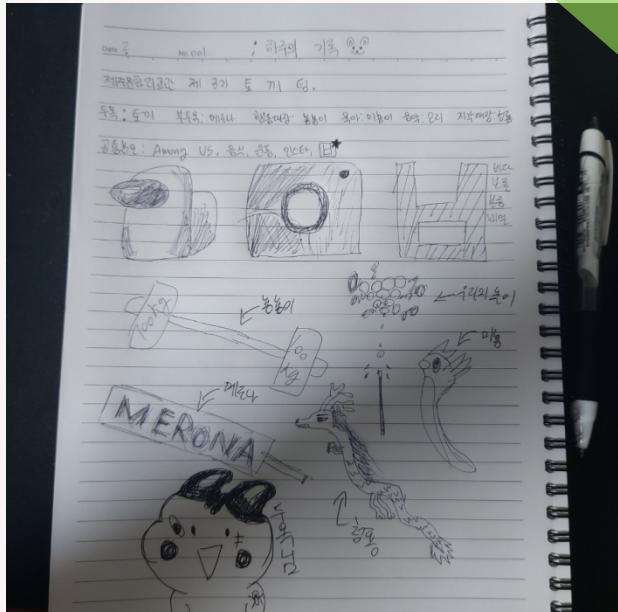
누군가에겐 손이 잘 가는 물건을, 누군가는 애정하는 물건을 소개하였고, 너럭바위라는 사자가 사냥을 한 후 자신의 몸에 새겨온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는 물어 봤더라. 자신의 생명을 끌어안은 깊은 상처에는 각자 KB의 다른 배려로 치유하기를.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치유는 100% 가능했지. ~
설명하기가 그동안 나에게 주었던 치유는 100% 가능했지.
KB의 말 놀라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생각을 빼내 될 것 같아.
내가 찾은 놀라운 것 같았어!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한중일 토끼팀_우리팀 이야기



제주문화예술재단 토끼팀!!

두목 : 토끼

부두목 : 메로나

행동대장 : 농농이

육아 : 미뇽이

음악 : 오리

지각 : 청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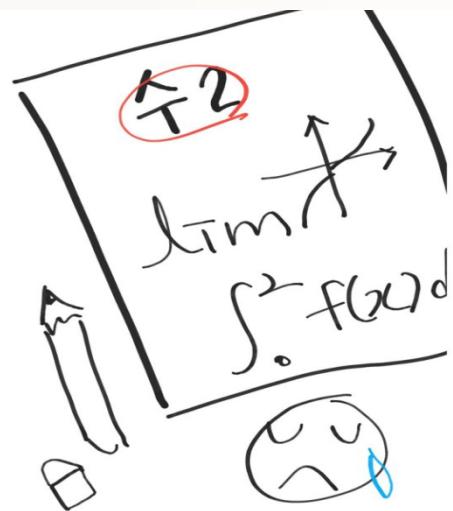
공통분모 : Among Us, 음식, 운동, 인스타

한중일 플렉스팀 : 나의 일상



정일성(하늘) : 나의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느끼는 공간

8월, 이사를 해서 더 새로워진 공간이라 더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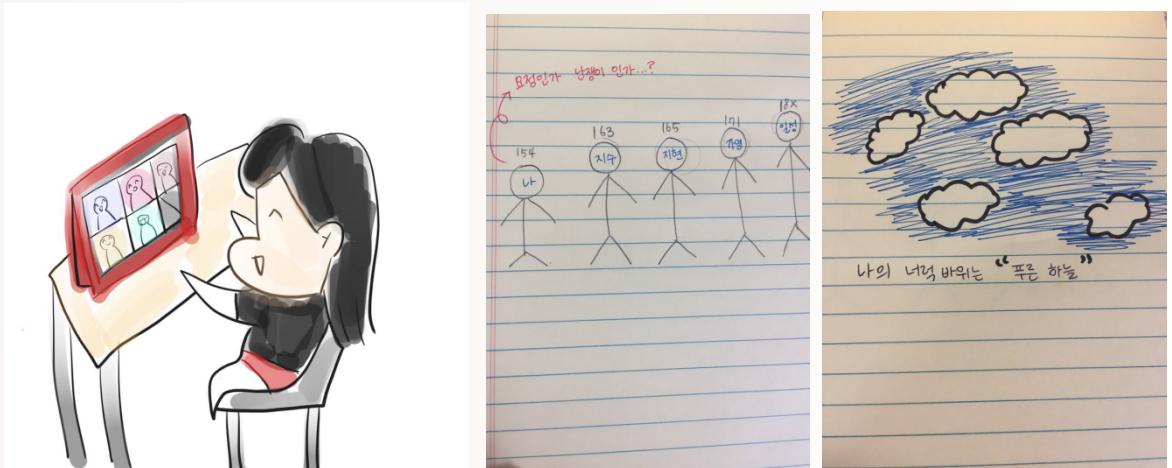
강지현(KJH) -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너무 짧아서 2학기 분량 선행을 일주일반 안에 다 해야하는 상황ㅠㅠ
또 수학이 평소에 부족해서 더 열심히 했다. 거의 하루에 7시간 이상 했다. 그래서 힘든 나의 요즘 마음을 표현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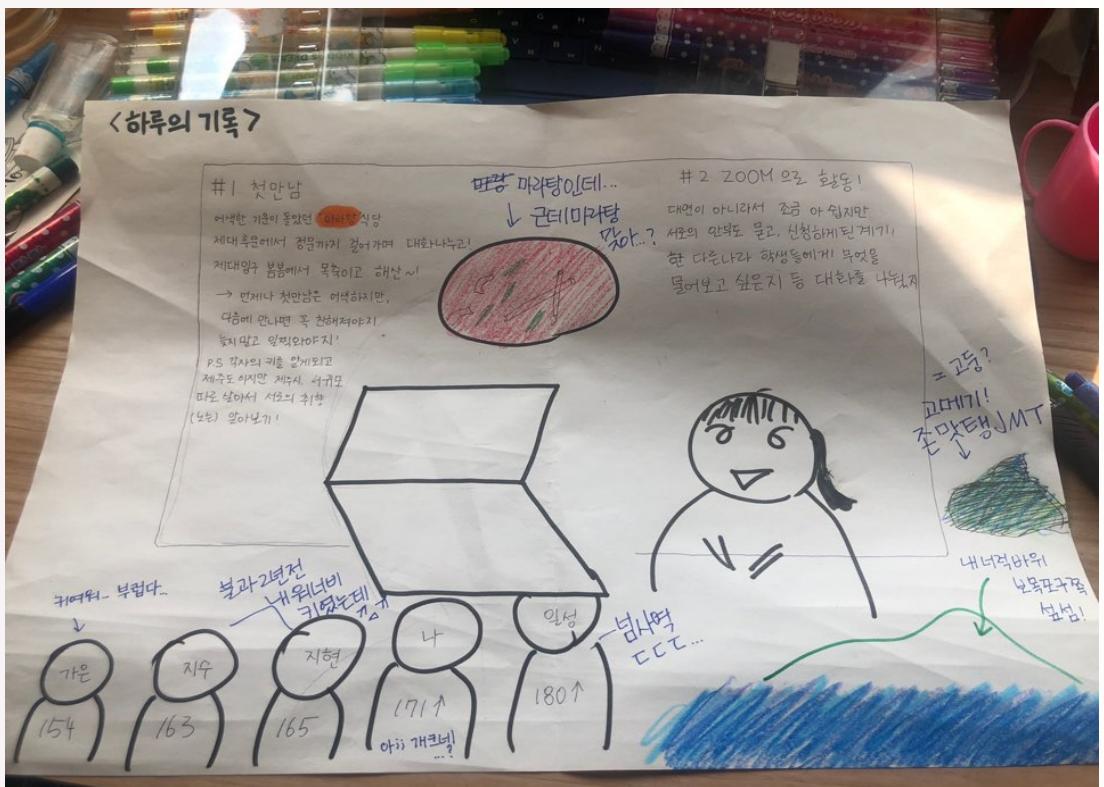
한중일 플렉스팀 : 나의 일상



지수(플렉스) - 코로나 19로 대면으로는 만나기 어렵지만 화상으로라도 만나는 것이 즐겁다.

이가은(응가) 우리팀 소개 & 나의 너럭바위는 푸른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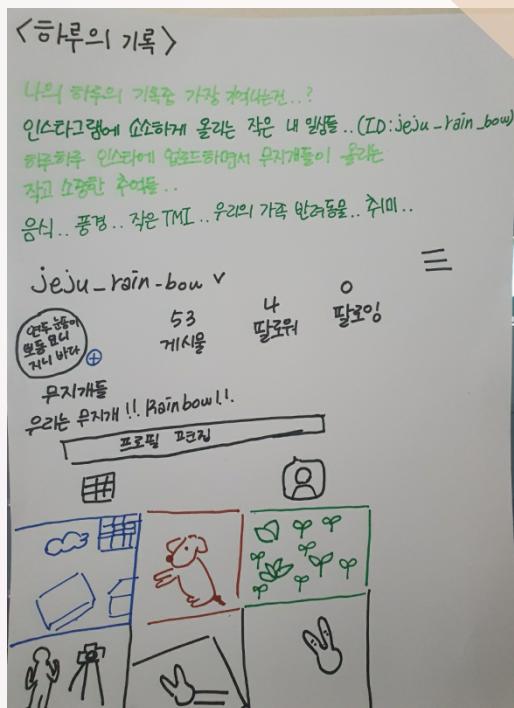
이가영(해례례) 우리팀 소개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한중일 팀(무지개팀) : 나의 일상



연두

무지개 팀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며 서로 일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신이 먹은 음식이나 간 곳의 사진을 올린 분들로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던진 분도 계셨고 일기처럼 자세하게 TMI를 남겨주는 분들도 계셨다. 비슷하지만 다른, 평범하지만 개성있는 일상들을 공유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지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물건은 바로 달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어떨 땐 행복하고 어떨 땐 우울하고 또 어떨 땐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하루가 항상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이 책으로 저는 그 하루에 일어났던 감정들과 상황들을 정리해요 또 한 내가 느꼈던 감정과 겹치게 되면 공감도 많이 얻어용!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한중일 팀(무지개팀) : 나의 일상

뽀동

각각의 수 많은 시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가지가 겹쳐져 지금 까지 수 많은 시간과 가지들이 겹쳐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함에 따라 한 송이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송이의 꽃이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 퍼져 한중일의 꽃을 피웠으면 하는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다

이번 방학에는 무지개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학교에 가서 전공이랑 전시 준비를 해야해서 매일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 갈때마다 하나씩 무지개를 찍었어요! 학교에서 실기가 끝나면 항상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 정류장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류장인 큰구름내를 찍은거랍니다! 저는 특히 풍경이나 하늘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예쁜 하늘을 보면 찍곤하는데 그런 사진들을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해서 제 일상과 사진을 친구들과 나눠요!

2.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물건: 토끼 인형, 지금은 없지만 2년 전까지 어릴 적부터 저와 함께 했던 인형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은 추억을 함께해온 인형이라 저에게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3. 너럭바위: 저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나 노래 듣는 시간이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걸로 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큰 휴식시간이구요! 혼자 있거나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치유해요!!



Date today 20/08/30

하루의 기록

알맹(이소선)



소소하지만 진심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따스히 기대해보는 우리, 제주의 열두 달!

한자리에 모여 꽃처럼 화사하게 웃을 날을 기다리며~

*그림 : 최예지 작가

LAVA(조재경)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 이전과 다른 불편한 움직임을 덜어 내며 살고 있습니다.
-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 이전보다는 놓아 질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 고정된 // 움직이지 않는 //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은 그저 머물러 있음 혹은 퇴화 임을 암니다.
-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은 나아감이고 변화이고 살아 움직임의 순간입니다.
- 우리는 지금 순간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불편한 움직임을 덜어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나아질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고정된 / 움직이지 않는 /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은 그저 머물러 있음 혹은 퇴화 임을 암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은 나아감이고 변화이고 살아 움직임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